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노스 앤도버 소재 박영찬 시민협회 부회장 자택에서 열린 덴고 연방의원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덴고 후보가 자신이 연방 하원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 끝까지 관심 놓지 말아달라"

세월호 유가족 보스톤 방문 간담회 및 추모예배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 세월호에 대한 오해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관심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노란 리본을 달고 배지도 달아달라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

보스톤을 방문한 7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위터타운 소재 그레이스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 참여한 7명의 유가족들은 2시간이 넘는 간담회, 추모예배 동안 여전히 웃음을 얼굴에 담지 못했다. 보스톤을 방문한 유해종(미지아빠), 이재복(수연이아빠), 박요섭(시찬이아빠), 김병준(민정이아빠), 김춘자(동수엄마), 여종은(민수엄마), 김명임(수빈) >>6면으로 계속

한인사회 덴고 위한 첫 선거자금 모금 후원 행사

40여명 참여, 1만 2천여불 모아 덴고 선거본부 전달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주관 로드아일랜드서도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방의원위원회에 출마한 대니얼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첫 한인사회 후원모금 행사가 노스 앤도버 소재 박영찬 시민협회 부회장 자택에서 16일 개최됐다.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이경해 회장과 김성군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주최한 이번 모금만찬은 덴고후보를 위한 첫번째 순수 한인사회의

모금 행사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행사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금모금 만찬에는 이재영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부부와 정정옥, 이길자 보스톤한미 예술협회 이사장 부부가 멀리 로드아일랜드에서 참가했다. 또한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이근홍씨 부부, 김영기씨 부부 등이 참여했다.

안병학 강원미주총연회장, 장진섭 옥타경제인협회장, 서훈 옥타사무총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비수기 최저가
인천행 항공권

\$929 부터

성인/왕복요금
세금, 유류비 포함

IACE TRAVEL
MON-FRI 11PM-9PM EST
617-424-8956
866-619-4223
info@iace-korea.com
www.iace-usa.com/ko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 MBC O585 O585 Plus tvN Xtv - - - - - O585 O585

PREMIER REALTY GROUP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한인사회 첫 모금행사서 1만 2천여불 모금

▶▶1면에 이어서

장, 이현경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 김성혁 전평통회장 등의 단체장들과 시민협회 임원진들이 함께했다. 평일 오후에 열린 선거자금모금 파티였던 관계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다. 이에 추경석 시민협회 수석부회장은 대고 후보와 직접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적절한 인원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포지검 검사직에 출마한 린다 챔피언도 참여해 대고를 격려하고 한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안병학 강원총연회장을 비롯한 일부 한인들은 린다 챔피언을 위한 모금 파티를 즉석에서 제안해 의논기도 했다.

대고 후보는 다른 행사에서와는 달리 행사 시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참가한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과 담소를 나눴다. 웃음띤 얼굴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대고 후보는 자신이 만났거나 자신의 행사를 방문한 사람을 바로 인지하고 인사를 건네는 영민함도 보유하고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일이었고, 정말 많은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아주 멀리서는 로드아일랜드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 또한 호스트해준 박영찬 치과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대고를 위싱턴으로 보내자” 고 말했다.

대고 후보는 “이경해 시민협회장에게 정말 빛나는 존재이며, 조직가이자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이번 선거 이전 보스톤시 비서실장일 때부터 만나 시민협회 등 한인사회를 소개했다. 정치인턴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기부해 달라” 고 부탁했다. 고후보는 꾸준히 보도해준 보스톤코리아에도 감사를 표했다.

고후보는 “나의 가족이 한국 제주와 레바논 주니어에서 건너와서 정착했으며 코리안레바논 출신인 내가 고향 타운에서 의원으로 출마해 의원이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고후보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도 미국에 각자의 사연을 지니고와서 이처럼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내가 “아메리칸 드림” 을 되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고 밝혔다.

미국이 미국답기 위해서는 어포더블 헬스케어, 일자리 그리고 과거의 미국을 보존하는 것에 기초한다는 대고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모두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미국다운 것” 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총 1만 2천여불을 모아 대고 선거본부에 전달했다. 김성군 시민협회 이사장은 “아직도 3천여불이 우편을 통해 더 걸릴 것” 이라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대고 연방하원의원 선거자금 모금 후원 만찬에 참가한 한인 관계자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이용재)



(좌)한인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대고 (우)대고와 부인 에밀리 소넷 (사진제공: 이용재)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고용현장 실사 이민자 체포 지난해 대폭 증가

7개월간 3510건 현장 실사, 대폭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세관단속국(ICE)이 회사들을 직접 방문해 불체자 고용여부를 단속하는 현장실사가 급증했다.

ICE가 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총 3천510여 곳의 작업장을 찾았으며 2천 282 작업장에서 고용자격조치양식(I-9)을 검사했다. 이를 통해 594명을 형사범죄로 체포했고 610명을 이민법 위반 등 민사 구금으로 체포했다. ICE 토마스 호만 부국장은 지난해 10

월 미국내 사업체의 현장실사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회기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는 단 1,716곳의 작업장을 조사해 1천360여건의 고용자격조치양식 구비 여부를 검사했고 139 형사범 체포와, 172 현장 구금이 이뤄졌었다. 불과 7개월 동안 현장방문은 2배, 체포 및 민사 구금은 3-4배 가량 늘었다.

국토안보부조사팀(HSI) 데릭 배너 현 부국장은 “작업장 단속은 I-9검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고용

주를 형사 기소 또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착취, 불법임금, 아동노동 그리고 기타 불법 노동행위를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은 고용시 I-9 양식을 사용해 직원의 신분과 취업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불법 고용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I-9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 고용을 단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다.

이민단속국으로부터 I-9 검사를 통보받은 사업체는 주말을 제외한 3일내에 회사의 I-9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벌과금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의도적으로 불법고용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법 위반체포 및 추방절차가 진행된다.

단속에 걸린 업체는 엄청난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회기연도 동안 사업체들은 총 9천7백60만불의 벌과금을 부담했다. 한 회사는 최대 7백80만불의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작년 성황리에 개최된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만찬 모습

국제선 연례 기금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만찬이 해버힐 소재 디버로스 평션홀에서 5월19일 토요일 6시에 개최된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매년 5월이면 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김인숙 회장은 “먼 이국땅에 오셔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

지고 이웃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서 연중행사로 하는 모금만찬을 위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올해도 만찬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60이다. 문의는 김인숙 회장 (978-828-1383)에게 할 수 있다.

장소: DiBurro's Function Facility, 887 Boston Road Haverhill, MA 01835

연락처: 978-828-1383
bostonkorean@hotmail.com



미이민세관단속국(ICE)가 고용현장을 방문해 불체자 단속하는 실사를 지시한 이후 7개월만에 작업장을 실사하는 사례가 이전 회기연도 대비 두배로 급증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렉싱턴 한인학부모들의 모임인 코렉스(KOLex)는 렉싱턴 주민들에게 한국의 음식 맛을 선보이고 요리책까지 나눠주는 행사를 렉싱턴도서관에서 개최한다

렉싱턴도서관서 '한국의 맛'을 소개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렉싱턴 한인학부모들의 모임인 코렉스(KOLex)는 렉싱턴 주민들에게 한국의 음식 맛을 선보이고 요리책까지 나눠주는 '한국의 맛' 행사 5월 21일 저녁 개최한다.

렉싱턴 소재 캐리도서관 어린이 도서실 맞은편의 대회의실(Large Meeting Room)에서 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한국의 맛(A Taste of Korea)"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지씨가 한국을 소개하고 코렉스 회원 조복순 씨가 한국의 대표음식인 불고기를 만드는 법을 시연한다. 또한 불고기, 잡채, 김치, 수정과, 식혜 등이 마련되어 시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요리책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도서관에도 비치한다

렉싱턴 캐리도서관은 그동안 중국, 인도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들 나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코렉스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에는 한국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코렉스 임원진들은 도서관 측과의 회의를 열고 임원진 회의를 거친 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음식을 주제로 선정해 한국을 알고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코렉스 관계자는 "월요일 저녁식사 후,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한국을 모르는 주위의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보스톤 서북쪽에 위치한 렉싱턴은 2010년 센서스 기준 3만 1천여명이 거주하며 한인인 1019명으로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5번째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타운이다.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한인 인구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많다. 미국 독립전쟁 첫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렉싱턴의 상징은 민병대 미닛맨 동상이다. 매년 독립전쟁 첫 교전을 시연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장소 : Cary Library, Large Meeting Room(어린이 도서실 맞은편)

시간 : 2018. 5. 21. 월요일 7:00 PM ~8:30 PM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회원 모습

성요한 교회, 한미노인회 회원 식사대접

사랑방 모임 6월 첫째주 수요일(6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한미노인회와 성요한교회 어른들에게 11일 점심을 대접했다. 성요한교회 조상연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성요한 교회에서 어버이날 식사를 가졌던 한미 노인회의 다음 사랑방 모임은 6월 첫째주 수요일인 6월 노스 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교회에서 개최된다.

사랑방모임은 9시부터 커피타임을 시작으로 라인건강댄스, 난타, 요가강의, 점심식사 그리고 오후 탁구, 바둑 등 자유시간이 진행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보경 Bokyung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1 연합뉴스 | 1 미션원 회원사 | 1 세한인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정관장 Mother's day 스페셜

행사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바쁜 ♥
엄마에게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

Event 1

3+1

화애락본 / 화애락진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무료증정

Event 3

천녹정 / 천녹톤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Event 4

홍삼톤 골드 / 홍천음 구입시,
천녹정 **30g 무료증정**

홍이장군, 아이페이스 구입시
아이키커 (사과맛) 2박스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에머슨의 콩코드서 한국 문화를 만났다

콩코드 도서관 한국 가정의 달 행사 어린이 프로그램과 문화 콘서트로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내에서 약 20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는 문화의 타운이다. 자연주의 철학자 랄프 에머슨, 월든의 작가 소로우, 작은 아씨들의 루이사 앨컷 등이 거주했던 이곳, 타운의 공립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가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기회를 12일 가졌다.

가정을 달을 맞아 개최된 한국 문화행사는 가족 행사와 문화행사로 나뉘었다. 먼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다식 만들기, 붓글씨로 한글 이름 쓰기, 제기 차기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총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위해 도예가 이재욱 씨, 서예가 전경희 씨, 최현집 목사를 비롯한 여러 도우미들이 각 순서를 담당하여 수고하였다.

저녁 6시부터는 한국 음식이 포함된 다과가 제공되었고, 이어 가정의 달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약 120명의 관객이 도서관 로비를 꽉 채운 가운데 보스톤 심포니의 합창단원인 소프라노 우상원 씨가 원숙한 기량과 풍부한 성량으로 한국 가곡 〈신아리랑〉과 〈새타령〉, 〈달밤〉과 〈꽃구름 속에〉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피아노를 맡은 윤정선 씨도 곡의 분위기에 맞추어 리듬감이 살아있는 음악을 함께 연주하였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용가 박찬희 씨가 이끄는 보스톤 한국무용그룹의 부채춤과 삼고무로 많은 미국인들의 감탄과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한국인 아내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한 더글라스 로스(Douglas Roth) 씨는 “삼고무라는 춤을 오늘 난생 처음으로 보았다. 긴 곡의 흐름과 리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통일된 움직임으로 북을 치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며 연신 감탄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15년에 콩코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유상효 씨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도서관 측에 정식으로 행사를 제안해 시작됐다. 2015년 첫 번째 행사는 지역의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이번 행사도 도서관과 주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콩코드 도서관의 어린이부 담당 디렉터인 캐런 에이헌(Karen Aheam) 씨는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며, 그날 직접 참석하여 격려해 준 김용현 총영사의 방문이 도서관에 큰 영광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스톤 영사관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대여해 준 금관 모형과 한국인형 등의 장식품은 5월 말까지 콩코드 도서관에 계속 전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와 콩코드 도



약 120명의 관객이 도서관 로비를 꽉 채운 모습



무용가 박찬희 씨가 이끄는 보스톤 한국무용그룹의 부채춤(좌)과 삼고무(우)로 많은 미국인들의 감탄과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소프라노 우상원씨와 피아노 윤정선씨의 공연 모습



유상효씨(왼쪽)과 도우미들

서관이 협력하여 주관하였으며, 콩코드 도서관 동우회(Friends of the Concord Free Public Li-

brary)가 후원하였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태권도 사범 조 김(49)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패스러싱 수비컨설턴트로 올시즌 활약한다

태권도 사범 조 김 패트리어츠 수비 코치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태권도 사범 조 김(49)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패스러싱 수비컨설턴트로 올시즌 활약한다.

클리블랜드 소재 태권도장 관장인 조 김은 2016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코치였으며 1992년 이래 10개의 미 프로 풋볼리그 팀의 코치 또는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그가 풋볼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2년 빌 벨러치 감독의 제의였다. 당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2년차 감독이었던 벨러치는 그에게 패스러싱(수비수로 쿼터백에게 달려들어 패스 전 제압(색)하는 선수)을 가르치는 일자리를 제의했다. 김 코치는 2016년 당시 브라운스 소속이었던 현재는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태클인 다니 웰튼을 지도했었다.

전 미 태권도 대표팀 소속이었던 조 김 코치는 패트리어츠 디펜시브라인 코치 브랜드 데일리과 함께 수비수의 손과 손대결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김 코치는 패스러싱 라인백커인 돈타 하이라워 등을 코치하게 된다. 그는 과거 오펜시브 라인맨의 대결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패트리어츠는 지난해 팀 통산 34개 만 성공시켜 풋볼팀중 16위에 속할 정도로 부진했었다. 패트리어츠의 지난해 최고 패스러서는 디펜시브 엔드 트레이 플라워스로 단지 6과1/2백만을 기록했을뿐이다. 올해는 애드리언 클레이본 선수를 수비수인 디펜시브엔드로 합류시켰으며 하이타워와 데릭 리버스 등이 부상에서 회복되어 탄탄한 패스러싱진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벨러치 감독은 1992년 클리블랜드 플레인딜러 신문을 읽고 마이클 딘 페리와 앤서니 플레전트 2명의 패스러싱을 김관장에게 보냈다. 김관장은 추후 플레인딜러와 인터뷰에서 빨간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에서 내리던 두 남성으로 그들을 기억했다. 이들은 김관장의 도장에서 그와 함께 연습했으며 몇 주 후 벨러치 감독은 김관장을 스태프로 고용했다. 김관장은 1995년까지 브라운에 남아 같은 직을 유지했었다.

고 김명환 사범의 아들 김관장은 브라운스 이외에도 레드스킨, 베어스, 칩스, 자이언츠, 브랑코스, 빌스, 팩커스, 카우보이스, 돌핀스 그리고 펜 스테이트 팀과 일했다.

hsb@bostonkorea.com

"세월호 끝까지 관심 놓치 말아달라"

▶▶1면에 이어서

엄마)씨는 간담회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질문에만 얼굴을 들고 답변하곤 했다.

유가족들은 한국에서 곧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될 "416희망공방"을 위해 뉴욕 지역의 브루더호프 커뮤니티(Bruderhof Community)를 견학차 뉴욕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문길인 5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간, 1박2일의 일정으로 보스톤을 들러 참여한 80여명의 보스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의 진실이 차츰 밝혀질 것이라며 관심을 돌

렸지만 실제로는 큰 전진을 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틀은 그대로다. 실제로 일을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이 나서서 지적해야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한국사회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오해를 간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각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갑질'이라며 역공격하고 있다. "돈을 더 많이 받으려 한다. 수십억씩 챙겼다. 천안함 희생자들도 못 받았는데 이제 그만해라"

등 카톡 등으로 떠도는 가짜 뉴스에 보스톤 지역 이민사회 일부도 세월호 유가족을 경원시 하고 있다.

심지어 사랑을 제일시 하는 교회마저도 이들을 아프게 했다. 신앙을 가졌던 유가족들 대부분은 현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게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안산 화성교회 박인환 목사의 말이다.

실제로 천안함 용사들은 계급에 따라 최소 7억 5000만원에서 최대 9억 1000만 원까지 받았다. 국민연금 등이 5억5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으며 이걸 다 뺀 세금 지원 액수는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7면으로 계속



워터타운 소재 그레이스비전연합감리교회에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 참여한 7명의 유가족들은 2시간이 넘는 간담회, 추모예배 동안 여전히 웃음을 얼굴에 담지 못했다.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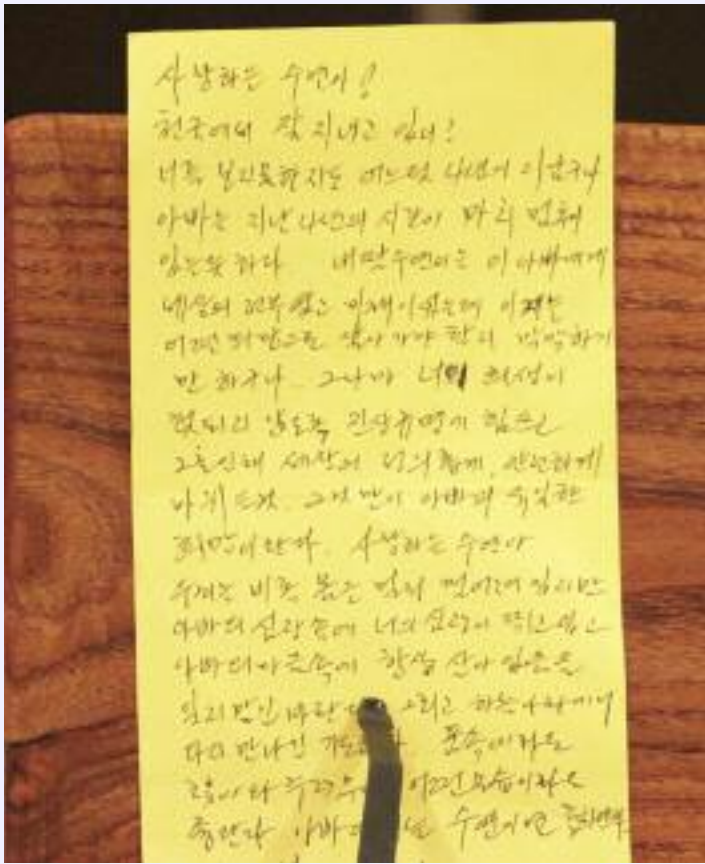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뉴욕서 개최



이재복 씨(수연이아빠)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딸에게 쓴 수편지

▶▶6면에 이어서
3억6000만 정도다.
세월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보상금 4억 2천이다. 여기에 학생들이 가입한 여행보험이 1억, 국민성금이 약 2억 5천 정도다. 이를 총합하면 7억 7천 정도다. 국가보상금도 세월호 여객보험에서 받는 보험 3억5천을 제하면 실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채 1억이 되지 못한다.
세월호 유가족 131명은 아직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민사 소송 중이다. 이들은 대출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민사 소송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을 법원에 불러내 유일하게 증언을 들 수 있는 방법” 이어서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전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우리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후회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유가족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찾아 “사고가 났을 때 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됐다. 죄송하다 어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다” 고 말했다.
목공을 하며 나무를 손질하면서 조금씩 잠잠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세월호 유가족은 불펜 책받침대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다. 유가족이 직접 만들어온 책받침대에는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쓰여 있었다. 공통된 이야기는 ‘진상규명’ 이었다. 이들은 아픔을 여전히 땅이나 바다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안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민주포럼이 개최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뉴욕 퀸즈칼리지 도서관에서 미 전역에서 모인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진행됐다. 보스톤에서는 황동재 보스톤민주연합 대표와 조은구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5.18행사에는 박효성 뉴욕총영사를 청와대 정책위원회 최민희 위원을 비롯해 워싱턴, 플로리다, 버지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폴리스, 보스톤,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등지에서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6명도 참석했다.

이번 5.18 행사는 당초 뉴욕 한인봉사센터(KSC)에서 개최기로 되어 있었지만 행사 직전 김광석 봉사센터회장의 반대로 급박하게 퀸즈칼리지 도서관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소동을 겪었다.
김 회장은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해 정치적인 행사” 라 기념식을 허용



북미민주포럼이 개최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뉴욕 퀸즈칼리지 도서관에서 미 전역에서 모인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진행됐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북미민주포럼 측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분리해 개최하겠다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행사 자체를 반대했다. 이번 행사를 두고 뉴욕의 애국동지회등 일부 극우단체들이 김 회장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동재 보스톤민주연합대표는 밝혔다.
강준화 5.18민주화기념사업회 대표

는 기념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현재 진행형” 이라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식과 정의에 손을 마주잡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현실 속에 5.18정신은 살아숨쉬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2부에는 세월호 유가족 7명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평통 제2회 통일 골든벨 개최, 이달말 신청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는 올해로 두번째 통일골든벨 행사를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6월 9일 개최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보스톤 지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KBS역사통일골든벨 행사의 보스톤 지역 예선의 성격으로 치러진다.
준비위원들과 평통 임원진은 5월 15일 렉싱턴 소재 다빈에서 모임을 갖고 통일골든벨 행사를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기로 했다. 준비위원장은 이현경 홍보분과위원장이 맡는다. 준비위원으로는 평통 김희순 기획분과위원장, 김숙자 여성분과부위원장, 장혜선 청년분과부위원장, 김현주 청년분과위원, 장우석 기획분과위원, 이재영 여성분과위원이 참여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31일 마감하며 최우수1명 \$200, 우수상1명 \$100, 장려상5명 \$50씩 지급한다. 전체 참가자에게 상장이 수여되며 행사 후 저녁도 제공된다. 보스톤지역 우승자에게는 한국에서 열리는 KBS역사통일골든벨 본선 출전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이현경준비위원장 nuacbostonhyun@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예상문제집과 신청서는 <https://sites.google.com/site/nuac-bostonchapte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내 베스트 농장 스테이 4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농장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농장에서 지낼수 있다는 소식이 반가울 것이다. 가족을 기르는 농장부터 허브를 기르는 농장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리조트 시설이 구비된 곳, 현대식 농장, 가족적인 농장 등 그 모양도 제각각이다.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로 차려지는 식탁 하나만으로도 농장 스테이를 해볼 이유는 충분하다. 뉴잉글랜드닷컴(newengland.com)에서 뽑은 뉴잉글랜드 내 베스트 농장 스테이 4곳을 소개한다.

하트만 허브 농장(Hartman's Herb Farm)
민트와 박하향이 가득한 하트만 허브 농장은 본래 1920년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땅이었다. 1970년대 중반 그 땅을 구입한 린과 피터 하트만이 그곳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허브를 가져다가 팔면서 농장이 시작되었다. 1989년 크리스마스 직후 글룩에서 시작된 불로 농장에 큰 화재가 났고 은행에서는 더이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된 방 다섯칸 짜리 B&B는 현

재 꽃과 허브 향내가 진동하는 농장 한복판에서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린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 도심에서 떠나 힐링이 필요하다면 하트만 허브 농장을 방문해보자. 허브로 차려진 저녁 식사와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다.

Barre, Massachusetts. 978-355-2015; hartmansherbfarm.com

이스트 힐 팜 여관(The Inn at East Hill Farm)
우유를 짜고, 빵을 반죽하고, 말을 타고,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는 농사일 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모나드녹 산의 멋진 풍경, 실내, 야외 수영장을 포함한 리조트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모든 연령대에 맞는 농장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신선하게 구운 빵과 가족적인 분위기의 식사가 제공된다. 1962년에 농장을 시작한 데이브와 샬리 애덤스는 현재 희귀 품종 가축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roy, New Hampshire. 603-242-6495; east-hill-farm.com



리버티 힐 농장 & 여관 (Liberty Hill Farm & Inn)

리버티 힐 농장 & 여관 (Liberty Hill Farm & Inn)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의 농장이다. 아이들이 송아지에 먹이를 주고 견초터미에서 뛰노는다면, 욕실과 집안일을 함께 하고, 이야기가 풍성한 식사를 나눈다. 베스와 밥 케넷이 1975년 버몬트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이 토지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기도가 4년 후에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소 100마리의 젓짜기 작업을 관찰하면 매일 먹는 우유와 치즈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Rochester, Vermont. 802-767-3926; libertyhillfarm.com

뱅글리 하우스의 로얄보로 여관 (Royalsborough Inn at the Bagley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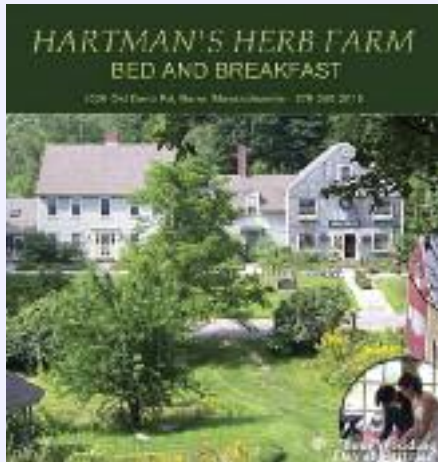
메인주 더럼에 위치한 이 농장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미소를 짓고 길을 안내하며 당근을 주면 뽀뽀를 하는 알파카가 있다고 한다. 2005년에 짐과 매리언 로버츠가 매사추세츠의 직

업을 포기하며 이 농장에 정착하게 될때까지만 해도 알파카를 키우는 것은 계획에 없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광섬유 농장이 되었다. 아이들이 염소에게 이뉘기기, 달걀줍기 등의 농장 활동을 즐기는 동안 어른들은 요리, 뜨개질, 마사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

Durham, Maine. 207-353-6372; royalsboroughinn.com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동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유아)
장곡마다 더 정감있는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월시 에어비앤비 민박 규제, 투자자 개입 안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월시 시장은 당초 지난 1월에는 투자자들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조례는 보스톤 시 주민들이 남는 방을 하나 단기 민박하거나 전체 유닛을 모두 민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단기 임대 주택은 보스톤 시에 등록해서 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룸임대의 경우 연 \$25을 부담해야 하며 가구전체를 민박으로 임대하는 경우 1년에 \$20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경우 한 가구전체를 한해 최대 120일간 단기 민박 임대할 수 있으며 역시 \$20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90일 이상의 단기 임대를 원하는 경우 소유주는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례의 핵심적인 논쟁은 소위 "투자자주택 (investor unit)"이라 불리는 범주다. 당초 월시는 비소유주, 비임대 주택을 최대 연 90일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에 이를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반대자들은 이 같은 주택이 사실상 호텔방으로 변해서 결국 절실히 필요한 보스톤시의 렌트 물량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톤 시는 보스톤내 약 2,000여 주택이 연간 265일 이상 단기 민박임대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대부분이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에어비앤비 등 단기 민박을 전문 사업으로 운영하는 투자자들을 단속하는 시 조례를 9일 제안했다

며 대부분이 투자자주택이라고 지적했다.

월시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자자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것은 그가 "크고 명확한 주장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에어비앤비의 규제에 대해 총대를 메고 추진해왔던 의원은 바로 미셸우의원이다. 의원은 이에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냈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단기 임대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우의원은 신규 조례가 "주택 소유자들이 모계지를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을 단기임대와 우리의 임대물량을 위협하는 규제 허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결정이 보스톤 중간소득층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톤의 규정은 연방법 위반이며 보스톤 중간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수천 가정이 민박(홈쉐어링)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를 통한 민박이 관광객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탱하고 주민들이 렌트비를 내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회사는 최근 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7년 한해동안 흑인 밀집지역인 도체스터, 매타펀, 락스베리와 자메이카플레인에서 투숙객들이 4천6백만불을 지불해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투숙객들은 단기 민박비용으로 총 1천1백만불을 지불했다.

이번 시조례는 몇차례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보스톤시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 하원과 상원은 에어비앤비 단기민박과 관련된 법안을 검토중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다이내믹스 조깅로봇 네티즌 시선 강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조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알트라스를 11일 선보여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일본기업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최근 계단을 오르는 로봇, 완벽한 공중회전체비를 넘는 로봇 그리고 문을 여는 로봇 등의 모습을 선보인 데 이어 조깅하는 로봇을 선보여 또다시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올린 34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알트라스는 잔디밭에서 조깅을 하며 중간에 멈춰서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성능을 선보인

다. 알트라스는 얼마전 공중회전을 해 착지하는 능력까지 선보인 바 있다.

이번 동영상은 단 하루만에 90만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단 3일만에 5백16만 7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알트라스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인한 인공지능향상이 점차 발달된 운동능력을 선보이자 네티즌들은 점차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의 창시자인 엘론 머스크는 과거 인공지능이 알트라스의 운동기능에 더해질 때이는 인간의 불안한 미래를 그리는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었다.

hsb@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의료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의료 서비스 수준과 비용 비교 가능 300가지 의료 비용 검색할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 정보 웹사이트가 지난 16일 오픈하였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의료 비용과 의료 보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이다.

의료 비용과 의료 서비스의 수준, 의료 보험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MassCompareCare.gov를 방문하면 된다. 이 웹사이트를 관리하게 될 정부 기관인 CHIA(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Analysis)의 레이 캠벨 수석 디렉터는 “우리는 이 웹사이트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매스컴페어케어는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받는 치료와 검사의 비용을 알려준다. 병원과 시설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약 300가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 비용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받는 총 액수와 함께, 의료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액수와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보여준다. 매스컴페어케어의 의료 비용 정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 보험 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단순히 비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서비스 수준을 점수에 따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의사와 상담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 라인도 제공해준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의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정 병원의 특정 진료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 보험에 가입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보험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의료 보험 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예상 의료 비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아마존 프라임 멤버 홀푸드 추가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인 홀푸드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받게 되는 새로운 혜택은 지난 16일부터 플로리다에 있는 홀푸드 마켓에서 시작되었다.

아마존은 프라임 멤버의 홀푸드 할인 혜택을 올해 여름까지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라임 멤버는 홀푸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추가로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또한 특정 아이템은 아마존 프라임 멤버에게만 판매되거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

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홀푸드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만 유기농 딸기를 파운드 당 2달러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아마존 프라임 멤버에 대한 홀푸드 할인 혜택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될 계획이다. 아마존은 캐나다와 영국의 홀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프라임 멤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는 전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 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마리화나 판매되면 얼마나 비쌀까?

초기에 높은 가격대 형성 가능성 높아 다른 주 경우 시간 지나면 가격 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최초의 유흥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올해 여름이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럼 과연 얼마에, 얼마나 비싼 가격에 마리화나가 판매될지 소비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미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성인에게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는 주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판매될 때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다가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콜로라도 주의 경우 가장 가격이 비쌌던 2015년보다 지금은 가격이 약 35% 떨어졌다. 오레곤 주에서는 생맥주 한 잔 가격보다 저렴하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마리화나 가격이 인하될 수 있지만, 올해 여름에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올해 7월에 문을 열 마리화나 판매점들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초기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매사추세츠 주의 상당수 타운과 시들이 이미 마리화나 판매점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마리화나의 판매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포프론트(4Front)의 크리스 크레인 공동 창업자는 “처음 마리화나 가게가 문을 열면 정말로 아주 높은 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크레인은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1/8온스(3.5그램) 마리화나가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세금이 최대 2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실제 금액은 8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마리화하는 50달러 선이다.

크레인은 “아주 간단한 문제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에는 충분한 공급이 없을 것이다” 라며 초기에 높게 책정된 마리화나 가격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바이오 급성장 인력이 모자란다

숙련 인력 부족, 2023년까지 1만2천여 신규인력 필요 전문대학사 출신 초급자와 박사 출신의 고급인력 부족 심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바이오의 약분야 성장이 너무 빨라 상당수의 바이오 회사들이 전문대학사 및 박사급 인력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인 매사추세츠바이오 테크교육재단(MB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약 1만2천여개의 바이오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년동안 바이오 인력 증가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증가세이다.

이 재단의 2018년 직업동향예측에 따르면 생명공학 분야는 매사추세츠 주 및 미 전역에서 평균 2배가량의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의 바이오의 약계의 고용은 7만명이 넘어서었다.

현재 가장 많은 수요의 인력은 연구실 테크니션 같은 전문대학사 졸업 인력과 박사급의 전문 연

구인력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테크 관련 전문대학사 졸업인원은 2010년 이래 56% 증가했지만 일자리 수요는 100%나 증가했다. 이와 유사하게 바이오 테크 박사(PhD)인력은 16%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43% 성장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바이오 업체들은 빈자리를 채우는데 상당히 오랜시간을 소요해야했다. 주내 128 바이오의 약회사 중 60% 이상이 필요 인력을 채우는데 10주 이상이 걸렸다. 미국내 평균은 약 30일 정도다.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은 유전자테라피, 암세포를 제거하는 CART-T테라피 등 최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충분한 경력의 적절한 과학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제약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다.

hsb@bostonkorea.com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1/8온스에 80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백악관 "북핵 협상,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 모델 적용"

북미회담 아직 희망적, 안 열리면 최대압박 계속

(서울=뉴스1) 장용석, 정진탄 기자 =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16일 "아직 희망적(still hopeful)"이란 입장을 내놨다.

또 북한과 협상에서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트럼프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여전히 회담이 열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 상 명의 담화를 통해 "(미 정부가)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의 이 같은 담화는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북한은 이날 김 부상의 담화에 앞서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1일 시작된 한국과 미국 공군의 합동군사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우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다"면서 "대통령은 회담이 열린다면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식 해법과 관련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용하는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적



용되는 모델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모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이를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가 최고의 협상가라는 것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jjtan@news1.kr

볼턴이 문제다, 북미대화 먹구름 책임론 나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마저 '재고(再考)'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그간 정부 내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 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회의(NSC) 보좌관에게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 그간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리비

아식 해법'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지난 13일 ABC방송에 출연해 2004년 리비아로부터 넘겨받은 핵개발 장비와 문서 등이 보관돼 있는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거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해체해 오크리지로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 상 명의 담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며 볼턴 보좌관에게 "사이비 우국지사"란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 과

거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대미(對美) 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화를 결정한 뒤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볼턴 보좌관의 언론 인터뷰와 북한 김 부상의 담화 전까지만 해도 북·미 양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에서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폼페이오와 볼턴의 대북 접근법엔 간극이 있다"며 "미국 내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단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코도 "볼턴은 '미국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일삼는 적성국들을 상대로 순진한 외교'를 생각해온 인물"이라면서 그가 북·미 간 협상,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전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회의(NSC) 보좌관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39.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이-팔 갈등에 국제사회 흔들 미, 이스라엘 감사

이틀째 실탄사격...사망자 63명으로 늘어 팔레스타인, 미대사관 이전 항의로 주미대사 소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 집회에서 이스라엘군의 유혈 진압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가자지구 접경지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최루탄과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났다.

현지 매체인 Waf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으로 터전을 빼앗긴 '대재앙의 날' 70주년을 맞은 15일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이틀째 실탄사격도 이어지며 최소 63명이 숨졌으며 3000여명이 부상했다.

미 대사관 이전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사관 이전에 항의하기 위해 주미 대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후삼 줌로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총장은 16일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앞서 터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터키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이스라엘에서 자국 대사를 송환할 방침이다.

아랍연맹(AL)은 이번 사태를 국제법 위반이자 아랍인,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16일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유엔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군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이번 갈등의 시초를 만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안보리 회의에서 유혈사태 규탄과 책임자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려고 했

지만 미국에 반대로 무산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군의 무력 사용을 비판하는 국제사회 여론에 반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시위대가 접경지대 분리장벽을 공격하고 화염병을 던져 보내게 조장하는 등 먼저 폭력 행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자제력 있게 대응했다"고 옹호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가자지구 충돌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하마스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자국의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는 미 백악관 입장을 반복했다.

하마스는 1987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무장 투쟁을 계속하다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이 된 단체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다.

seunghee@news1.kr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부상한 한 시위 참여자를 옮기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IT 공룡들, 잇따라 블록체인 시장 진출 선언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세계 최대의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아마존도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세계적 IT 공룡들이 속속 블록체인 시장이 진입하고 있다.



◇ 아마존 칼레이도와 합작, 블록체인 시장 진출 :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합작사를 통해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보도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컴퓨팅 자회사는 이날 고객사들이 블록체인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블록체인 전문 회사인 칼레이도와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칼레이도는 블록체인 전문 신생기업으로 블록체인 인큐베이터인 '컨센시스'가 육성한 업체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 자체 암호화폐 발행 진지하게 고려 : 세계 최대의 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암호화폐 부서를 신설했다. 페이스북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하면 페이스북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이용자 신원 검증 등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미 1년 전부터 모건 벨러 기업개발팀 팀장이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 IBM도 '소브린 파운데이션' 참여 : 미국의 대표적 IT기업인 IBM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분산된 I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 '소브린 파운데이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브린의 디지털 ID 시스템은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기법으로 서명된 인증서를 안전하게 교환, 디지털 ID 정보를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마리 비크 IBM 블록체인 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채택을 신뢰할 만한 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중개자 없이도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인증서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nopark@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습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문무일 총장 '수평적 소통' 리더십, 수사외압 논란에 흔들

검찰 내 수직문화 개선 시도 문, 법률가 소신도 강조...민감한 사안 법리 검토 필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검찰 후배들이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개적인 이의 제기를 쏟아내면서 검찰 안팎에서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리더십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일부 검사들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의 실제 유무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논란까지 이르게 된 데 있어서, 총장이 주요 결정을 외부 심사에 넘기는 등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휘방식을 적용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진통으로 보고 있다.

17일 대검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51·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전 춘천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꾸려진 전문자문단이 18일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당초 수사단은 김우남 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고 교수, 기자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겠다고 대검에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수사심의

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빚어졌다.

과거 총장들과는 결이 다른 이 같은 지휘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문 총장의 신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문 총장 측근들은 입을 모은다. 민주화 시대에 검찰이 피할 수 없는 변화과정이란 맥락에서다.

대검 핵심 간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도 권위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 토론이 안 되고 수직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현실 판단을 갖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맞춰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로 빠르게 바뀌어 가는 시민사회와 달리 여전히 수직문화에 갇힌 검찰을 이대로 두면 사회적 부조화가 발생하는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의 내부 의혹 폭로 역시 이러한 수직적 검찰 문화가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수평 문화로의 변화 없이는 재발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 기회에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꿔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문 총장은 지난 14일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서지현·안미현 검사 폭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간부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숙제를 내줄 요량이라고 한다.

수평문화에 대한 문 총장의 생각은 일선 검사들의 기자회견 허용 여부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기자회견 허용은 소속된 지검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지검장들은 총장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 이때 문 총장은 웬만하면 허가해주려고 하는데도 지검장이 불허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란다.

수평문화에 대한 문 총장의 의지는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김태정 총장 퇴임 서명을 문 총장이 주도한 적이 있을 만큼 오래된 소신이기도 하다.

검찰의 사건 수사와 기소에 대한 상급자나 지휘부의 지시·지휘 등의 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 역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문 총

장이 적극 수용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국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문 총장의 이번 강원랜드 외압 수사 처리 방식은 이러한 문 총장의 신념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 기소 여부에 대한 전문자문단 심의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바랐던 강원랜드 수사단의 요구를 시작으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결국 수사단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 맡기기로 된 경우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인 16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의 또 다른 신념은 검찰 수장으로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

든 사건을 법리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다.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 이번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과거 전례상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 십상인 직권남용 혐의여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판검사 출신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판단을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몰라도 수사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들어오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법률가로서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문 총장은 18일 예정된 전문자문단의 법리 판단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들이 전문자문단의 판단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ptj@news1.kr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Y 18 - MAY 24,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H MART MEETS CHEF JOHNNY CLARK AND BEVERLY KIM AT PARACHUTE IN CHICAGO. CHECK OUT THEIR MICHELIN-STAR, SEASONAL AND REFRESHING TUNA BIBIMBAP RECIPE!

H마트가 공개하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참치 비빔밥 레시피로 맛있고 색다른 한끼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
- Packed Garlic 렉마늘 **2\$3** pkg./for 5cmt/pkg
- FRISAT/SUN ONLY 18/19/20 ONLY Garlic Stem 마늘줄 **\$2.99** lb
- Ginger 생강 **\$1.29** lb
- Gold Kiwi 골드키위 **\$22.99** box
- Nagaimo 일본 마 **\$4.99** lb
- FRISAT/SUN ONLY 18/19/20 ONLY Mango 망고 **\$8.99** box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 14-16oz/pkg **\$0.99**
- Gobo 우엉 **\$1.9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Pa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lb
- U.S.D.A. CHOICE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홍두깨 **\$6.99** lb
-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
- Sliced Pork CT. But for Bulgogi 냉동 돼지고기 **\$5.99** lb
- Beef Short-Rib 냉동 우삼겹살 **\$7.99** lb
- Marinated Beef Ribeye Steak 연제빙진 등심스테이크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Female Capelin 시사모 **\$2.99** lb
- FRISAT/SUN ONLY 18/19/20 ONLY Frozen Abalone 냉동 전복 10-12oz **\$19.99** lb
- BUY 1 GET 1 FREE Mackerel 냉동 고등어 400-600g **\$3.99** lb
- TONGTONGBAY Dried Shrimp 동동배 두절 건새우 **\$7.99** 4oz
- Head-on Shrimp 머리 새우 70-80% **\$3.99** lb
- FRISAT/SUN ONLY 18/19/20 ONLY White Bass 화이트 베스 **\$1.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0.99** 18 lbs
- DONGSUHNGIN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Bot Mid - 100sticks/box **\$12.99**
-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Original/Peach - 0.17oz x 150sticks/box **\$9.99**
- 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6.4 oz **\$12.99**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대상: 만화권 \$1000 및 특별 트로피와 상장 - 전체 1명
날 짜: 2018. 6. 2(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주최자: 2018. 6. 23(토) 11시 - 오후 4시
장 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3000 Park Ave, NJ 07050
참여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접수장소: H마트 NY, NJ, PA, MA 매점내 고객센터
접수기간: 2018. 4. 13 - 5. 27
참 가 비: \$20 (접수 접수비 포함) \$20 (제출비 포함)
수상일: 2018. 7. 13 (금)
시 상 식: 2018. 7. 14 (토)
주 제: 당일 공개
문의: 매점내 고객 서비스 센터 877.427.7386

- RAW NATURE Nuth Whole Grain Brown Rice 자연산 원곡 오문도미 15 lbs **\$12.99**
- PULMONO Cold Noodle 불우림 평양냉면/냉면냉면 Pyung yang/Pyongyang 34.5oz **\$4.99**
- SHIRAKU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기쿠 참기름 590cc **\$9.99**
-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배오름 소불고기/소갈비 양념 Kalbi/BBQ 2.11 lbs **\$3.99**
- BEKSUL Korean Frying Mix/pancake Mix 백설 튀김가루/부침가루 2.2 lbs **\$1.99**
- HAIOREUM Red Pepper Powder Coarse 회오름 굵은 고춧가루 4 lbs **\$9.99**
-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콩콩면 1.5 lbs **\$2.95**
- HAIOREUM Dumpling 회오름 만두 2.55 lbs **\$4.99**
- NONGSHIM Snack Mix 농심 기차 가래떡 2.5 lbs **\$10.99**
- GLUCO Pocky 글루코 토끼 초콜릿/스트로베리/코코아 & 초콜릿 3.8 4.5oz **\$2.99**
- HAITAI Tami Choco Flavor los Bar 허태 참양바 67ml x 6pcs/pkg **\$4.99**
- CALPICO Drink 갈비/우유/우유 All Varieties 1.7L **\$3.99**
- KOTO Indoor Electric Grill 코트 인도어 전기그릴 **\$24.99**
- Korean Sickle 한국산 낫 **\$4.99**
- Ceramic Round Container Set 세라믹 화형 전기 세트 Garden Flower/Pot - 3pc/set **\$7.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mistak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asic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asic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021) H-MART BURLINGTON STORE: 15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43 / STORE: 43,943 Sq. Ft. / 7am - 10pm / Fri - Sat: 8am - 10pm

라돈 침대 사건, 가슴기 살균제와 유사, 범정부 대책 필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 최근 불거진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종주 특조위원은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침대를 빠르게 수거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칠 특조위원도 "현재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라돈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방출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조승연 연세대 교수는 "모든 국민들이 인재로 판단하고 받은 충격이 크다. 가슴기 살균제, 석면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피해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출된 라돈 수치를 통해 통계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라돈 침대'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참석했다.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배모씨는 "2013년 11월에 훈수로 침대를 샀는데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제품을 사용했다"면서 "아기를 한 차례 유산한 뒤 어렵게 낳았는데, 아기가 6개월동안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았다. 이번 일로 모두 수유도 끊었고, 앞으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배씨는 또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원안위와 환경부는 서로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떠넘겼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우리는 대체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과학적으로만 말씀드리다면 현재까지는 모유 수유를 당장 끊을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라돈이나 토륨으로 발생된 납의 농도는 굉장히 낮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순필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공개 진행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가정사 티격태격 이재명-남경필, 서로 "도지사 품격" 충고

(경기=뉴스1) 송용환, 진현권 기자 = 일명 '음성과악'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민주당) - 남경필(한국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5일 서로를 향해 '도지사 품격'을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 후보의 경우 친형과 형수를 향한 욕설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과악'을 이유로 이 후보의 공천 철회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 후보는 "가정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남경필 후보님, 제가 인격수양이 부족해

형님 부부 패륜행위에 분을 못 참고 수차례 싸우다 욕설한 사실 다 인정한다. 또 공개사과도 수차례 드렸지만 또 사과하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하겠다"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누구나 하나쯤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잘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흔들림 없이 주권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숙명이자 의무 아니겠나"라며 "남 후보는 여전히 1300만 경기도민에게 월급을 받는 '현직' 도지사이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출사표를 던진 제1야당 경기도지사 후보다. 많은 분들이 현직 도지사의 체신과 품격을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남 후보를 향해 더 이상 네거티브에 나서지 말고 정책대결을 펼치자는 제안도 함께 했다.

연일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남 후보도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언론인클럽 공동주최로 티브로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남 후보는 도지사의 조건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갈등을 부추기는 리더십은 안 된다. 서로 간 악감정이 생기게 한다"며 "품격 있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syh@news1.kr



남경필(한국당, 왼쪽)-이재명(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HUSAZOMO USA
The Volume Enhancement ふさ増毛
프리미엄 명품 증모술 후사조모
카네카 후츠라모

한가닥의 모발에 초경량 가모 4가닥을 묶어 2~3배 늘리는
프리미엄 헤어증모술
보스톤 총판, 대리점, 교육생모집
기존매장의 새로운 후사조모 증모기술 도입으로 매출증대는 물론 탈모로 고민하시는 고객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사조모란?
 ✓ 빠지면 아까운 실는시술, 티나는 가발고민을 현방에 해결
 ✓ 단순증모술이 아닙니다. 스타일 연출까지 가능한 증모술
 ✓ 한듯 안한듯 가벼움과 리페어까지 가능!

후사조모 증모교육
미국 인사소속 에듀케이터 직접 교육
시술설계, 케팅설계, 미용설계, 모든 실습재료는 교육비용외로
모든 과정 수료 후 일본 인증 디플로마 증명

시술, 총판, 대리점, 교육 문의
201-849-5130 / 201-678-8828

시술교육 재료
교육과정(2회 8시간)

1550 Lemoine Ave, suite #211 Fort Lee, NJ 07024
www.husazomousa.com info@husazomousa.com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Haverhill에 위치, 매상 \$150,000 세탁소 저렴한 렌트비, 24년째 운영중, 안정적인 매상
Asking \$135,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년매상 \$250,000 이상, 안정되고 물안에 좋은 자리 위치 안정된 고객층 및 발전 가능성 +
Asking \$220,000

Business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알링턴 Mass Ave 선상에 위치한 커머셜 자리 리스, 1,000 Sq. Ft \$3,000 plus NNN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Business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Business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드롭오프 세탁소
\$185,000 년매상, 1,000 sq.ft. 보스톤 인근 메인길 선상에 위치
Asking \$12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人

舌 (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She speaks with wisdom, and faithful instruction is on her tongue. - 잠언(Proverbs) 31:26.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한국표준시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남북한고위급회담 무산 책임과 관련된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유감의 뜻과 함께 남북 고위급회담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우는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 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내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 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미국 상전과 한쪽이 돼 역대규모의 연합공중전후훈련을 벌여 놓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 왔다” 고 비난 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공군의 연합훈련인 ‘맥스썬더(Max Thunder)훈련’ 을 문제삼아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당일 새벽 우리정부에 통보했었다.

리 위원장은 “회담 무산의 원인인 침략전쟁 연습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남조선당국의 괴이쩍은 논리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

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북침전쟁 연습을 합리화(合理化)하고 역겨운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과렴치의 극치” 라고 비난 했다.

“남조선(한국)당국이 우리(북한)를 언제 쏟아질지 모를 불소나기 밑에 태평스레 앉아 잡담이나 나누고 자기신변을 위협하는 상대도 분간하지 못한채 비정상적인 실체로 여겨졌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오판(誤判)과 몽상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최대규모로 벌여 놓으며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 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 라고 했다.

이는 Max Thunder(맥스썬더)훈련과 최근 국회에서 열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강연 등을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의 원인으로 시사한 듯 하다.

리선권 위원장은 터무니 없는 책임 전가에 매달려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게 최선의 방법을 창출해 내기를 촉구한 것이다.

북 외무성 김계관 1부장은 16일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核)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북미수뇌(미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불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핵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리비아 핵포기 방식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를 주장하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계관 담화에 앞서 16일 자정을 갓 넘겼

을 무렵 한국과 미국 공군의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썬더훈련을 비난하며 이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 15일 오전에 자신들이 제안해 놓고 한나절 만에 뒤집은 것이다.

회담이 열려야 할 시간을 10여시간 앞둔 시점. 올 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 대화를 제한한 이래 남북간에 합의 했던 일정을 한밤중에 취소 통보한 것이 지난 1월 북한에 술단의 방남, 2월 금강산 남북 합동 공연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미·북간 현안이 자기들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미국대신 한국을 향해 멋대로 화풀이 하는 버릇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편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뜻도 담겨있을 것이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은 꼭 열려야 한다.

북을 달랠 수 있다면 달래서라도 회담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이 회담의 목적인 북핵(北核)을 없앤다는 목표는 결코 바꾸어져선 안된다.

이 기회에 우리 국민과 민족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화학무기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

회담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해 북한이 하자는대로 핵 실험장 폭파 쇼 몇번에 북(北)의 수중에 핵과 시설, 인력을 남겨 둔다면 한국은 핵 인질로 남는 처량한 신세가 될 뿐이다.

미·북회담으로 노벨상을 겨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핵(北核)을 막고 평화상(平和賞)을 노려야 할텐데...

설舌: 혀 설-혀가 없는 사람은 없다. 혀는 사람의 삶. 즉 생존(生存)과 직결 돼 있다.

舌은 ① J : 하나님이 주신 숨결의 표시에 다 ② + :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고평하는 표적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十)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十) and follow me." -마태복음 16:24.

교회마다 건물에 십자가 붙은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명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로 표시된 까닭.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一)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一) 이 두 계명이(十)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一).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一)'.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十)." -마태복음 22:37-40.

교회가 사랑(十)의 뿌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께서 바로 상하(上下) 사랑과 평행 또는 이웃사랑을 위해 십자에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영생주(永生主)가 되신 것. 예수님 따라 영생하고 싶어 일요일에 십자를 는 사람들-하늘나라 혀(舌)를 길들일려고.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Jay Lee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금주의 LISTINGS

LISTINGS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얼스톤 88 마켓 푸드 코트 안 성업중인 식당

ASKING \$187,5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패키지 store

ASKING \$200,000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TASTE THE NORWEGIAN DIFFERENCE

EXPERIENCE PREMIUM MACKEREL FROM THE COLD, CLEAR WATERS OF NORWAY

MAY 18TH - 20TH, 2018 AT HMART BURLINGTON

노르웨이 수산물의 차별화된 맛!
노르웨이 청정해역에서 자란 고등어를 맛보세요!



SEAFOOD FROM NORWAY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MART**

H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el . 718-221-4570

고리뎡을 아시나요?

옛날 얘기치고 재미있는 건 별로 없지만 '고리뎡'은 예외다. 필자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고리뎡이 부의 상징이었다. 시내로 나왔더니 고리뎡이 아니고 '골덴'이란다. 제일 모직의 골덴텍스가 멋쟁이의 표지였다. 시간이 흐르고 종이 사전이 디지털 사전으로 대체된 지금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골덴이 아니라 '코르덴'이라 나온다. 코르덴은 영어 corduroy를 옮긴 것이다. corduroy가 어떻게 고리뎡, 골덴, 코르덴으로 번역되었을까?

잘못된 영어번역의 근원을 탐색해보면 대개 일본어를 거치면서 변형된 경우가 많다. 골덴이 딱 그런 경우이다. '골덴'을 '코르덴'으로 바꿔놓은 네이버의 야심작 파과과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돈 100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사전 치고는 참으로 무식하다. corduroy를 '골덴'에서 '코르덴'으로 옮겼다고 해서 원어에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골덴'을 '코르덴'으로 바꿀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덴'은 프랑스인들이 영국산 천의 이름인 kings-cordes(왕의 옷감)를 프랑스어식으로 옮긴 corde du roi에서 유래한다. 이 단어를 다시 영어식으로 옮긴 것이 corduroy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서는 절대로 고리뎡, 골덴, 코르덴이 나올 수 없

다. 사실은 이 천이 골을 내어 만든 것이라 미국의 영어단어 cording을 일본인들이 자기네 말로 옮겼고 이걸 다시 우리말로 가져오면서 '골덴'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원어에서 멀기는 '골덴'이나 '코르덴'이나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번역은 늘 어렵다. 오죽했으면 이탈리아 경구 중에 '번역은 반역(traduttore, traditore)'이란 말이 있겠는가. 꽤 오래 전에 한국에서 번역과 관련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세계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의 번역본에서 저질러진 오류들 때문이었다. 작품에 나오는 magi를 '동방박사'라고 했어야 하는데, 번역자가 그만 '매기'라고 해버린 것이다. 부주의와 무성의가 빚어낸 참사였다. 성경의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았어도 이런 실수는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magi는 mago의 복수형이고 mago는 '주술사'를 뜻한다. mago의 형용사형이 magic이고 주술을 부리는 사람을 magician이라 한다. 인류학 저술에서는 mago와 magi를 특별한 전문용어로 사용한다. 덧붙이자면 magi의 발음도 [매기]가 아니라 [매자이]이다.

혹자는 '주술사'를 왜 '동방박사'로 번역했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고대에는 '주술

사'가 박사이자 현자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magi란 단어가 딱 4회 언급되었는데 어디에도 세 명이란 이야기는 없다. 어떤 이유로 동방박사가 '세 명'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파크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님에 의하면, 초대교회 벽화에는 동방박사가 두 명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세 명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Harvard University를 중국어로는 哈佛大學이라 한다. 이걸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합발대학]이지만 중국어식으로는 [하포파췌]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한 이유는 [포]가 아니라 /fo/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말 번역이 본토 발음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말이 나온 김에 하버드 대학의 중앙도서관이 와이드너 라이브러리이다.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 외동아들을 잃은 와이드너 가문의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 재산을 기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서관 옆에는 중국식의 거대한 거북 비석이 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보스톤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희생된 중국인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대학이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와이드너를 지나 옌칭 연구소로 갈 때마다 필자는 번역

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무슨 무슨 센터라고 하는 center를 중국인들은 中心으로 번역한다. 처음엔 참 이상하게 와 닿았는데, 보면 볼수록 맞는 번역인 듯싶다. center는 중심이니까.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센터'라고 쓰는 우리가 다소 무성의한 것이 아닐까.



1960년대 유행하던 골덴 차림의 존 레논, 인터넷 자료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uway Pastoral Center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SALE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자체 안마의자 서비스 센터 운영

마사지체어 빅세일

이나나 드림웨이브 or 파나소닉 MAJ7

- ① 36개월 무이자 할부 +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 ②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or 삼성김치냉장고 무료증정

모든 안마체어 구입시
Up to 36개월 무이자 할부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NEST \$7,900 \$6,000 24개월 + Tax</p>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FLEX 3S \$7,500 \$4,300 12개월 + Tax</p>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SOGNO \$7,999 12개월 + Tax</p>	<p>OSAKI OS Pro Maestro \$8,700 \$6,200 24개월 + Tax</p>
<p>PANASONIC MA73 \$223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70 \$139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p>
<p>POSITIVE POSTURE BRIO \$6,900 \$4,500 24개월 + Tax</p>	<p>APEX AP-Pro Reget \$100 /월 36개월 + Tax</p>	<p>APEX AP-Pro Lotus Open Box \$3,500 \$1,700 Special Sale</p>	<p>APEX iCOZY Leisure / Game / Movie Multi Purpose Massage Chair \$750</p>
<p>INFINITY IYASHI Zero Gravity \$172 /월 36개월 + Tax</p>	<p>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p>	<p>COZZIA EC 326 \$3,200 \$2,300</p>	<p>TITAN Pro 8400 \$1,700</p>
<p>OSAKI OS Pro Omni \$3,700 \$2,780 12개월 + Tax Special Sale</p>	<p>OSAKI TP 8500 Zero Gravity \$100 /월 36개월 + Tax</p>	<p>FUJIIRYOKI FJ 7900 \$158 /월 36개월 + Tax</p>	<p>FUJIIRYOKI FJ 3800 \$120 /월 60개월 + Tax</p>
<p>KAHUNA LM 8800 \$5,800 \$1,700 Display Unit</p>	<p>FUJIIRYOKI FJ 5000 \$5,500 \$2,900 3year warranty Display Unit</p>	<p>FUJIIRYOKI FJ 4600 \$5,800 \$1,900 3year warranty Display Unit</p>	<p>PANASONIC 30007 \$2,500 Floor Model</p>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781-862-6867** www.hitrons.com
Lexington, MA 02420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8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음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점 본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8B3, North Wales PA 191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857(린컨노트 매장앞)
201-941-0010

"미치게 독하다" '독전' 조진웅x류준열, 파격변신의 향연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독전'은 아시아 마약 시장 거물을 쫓는 형사가 조직의 후견인과 버림받은 조직원, 조직의 숨겨진 인물 등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천하장사 마돈나'로 대표되는 이해영 감독의 스타일을 확연히 벗어난 신작이다. 시종일관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캐릭터들의 '독한' 전쟁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감독은 "기존의 제 영화와 다르게 느껴지고, 이해영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안 보인다면 감사하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세 편의 연출작을 내놓은 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영화를 찍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고 했다.

조진웅이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형사 원호, 류준열이 버림받은 마약 조직원 락 역을 맡았다. 이어 차승원이 마약 조직의 숨겨진 인물 브라이언, 김성령이 마약조직 후견인 연옥, 박해준이 마약 조직의 임원 선창 역을 맡았다. 또故 김주혁이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 진하림을 연기했다.

조진웅은 극한의 감정을 오가는 연기를 펼쳤다. 그는 "선과 악이 모든 이에게 공존하는 것 같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표현하는 영역에 스킵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다. 원호의 심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 자체를 할 수는 없었다. 따라가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다.

류준열은 조진웅과 함께 영화 대부분의 장면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조진웅에 대해 "작품을 하면서 선배에게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배우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번에 만난 조진웅 선배는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선배다. 이 작품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했다.

이어 "조진웅 선배는 많은 작품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을텐데 이 선배는 정말 즐기고 있구나,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배운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진웅도 "류준열과 작업하면서 건강한 에너지 현장에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귀감이었다"

고 화답했다.

조진웅 류준열이 무게중심을 잡고 극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차승원 박해준 김성령은 기존의 얼굴을 지운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인다.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김성령은 관객의 시선을 스크린에 집중시키고, 박해준은 비열함으로 마약 조직의 악랄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후반부 차승원의 등장은 이야기가 끝까지 힘을 잃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친다. 김주혁 역시 그의 연기 생활 중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살기와 광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거침없는 악행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 관객들을 놀라게 할 법하다.

'비주얼 버스터'(비주얼 블록버스터)를 표방할 정도로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캐릭터, 자극적인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흠잡을 데 없이 밀도 높다. 다만 캐릭터와 스토리 흐름의 개연성은 다소의 문부호가 남는다. 열린 결말로 해석될 후반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작품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개봉.
ichi@news1.kr



5월 20일 - 5월 2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좋은 시간을 선물</p> <p>● 운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야망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이 따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p>	<p>소띠 타이밍이 아주 중요</p> <p>●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0, 25일 길일. 24, 26일 주의.</p>	<p>범띠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p> <p>● 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풀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p>
<p>토끼띠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p> <p>● 운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듯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6일 주의.</p>	<p>용띠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p> <p>● 운수: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을 클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6일 주의.</p>	<p>뱀띠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p> <p>● 운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 애정: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2일 주의.</p>
<p>말띠 누울 자리를 보고</p> <p>● 운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양띠 경청하고 배려하는</p> <p>● 운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 애정: 상대가 내 말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6일 주의.</p>	<p>원숭이띠 참고 지나가는 것이</p> <p>● 운수: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p>
<p>닭띠 길아 아니면 가지 말아야</p> <p>● 운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요. ● 금전: 길아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p>개띠 이미지 변신에</p> <p>● 운수: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 보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p>돼지띠 한 숨 돌리게</p> <p>● 운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 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애정: 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구직

광고 문의 617-254-4654

5/11
세탁소에서 오후 5시 이후부터 일하실 분 구합니다.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음.
T. 617-584-5477

뚜레쥬르 베이커리 직원 모집

벌링톤, 올스톤에 위치한 뚜레쥬르 베이커리에서 참신한 직원 모집.

포지션: 케서, 바리스타 & 케익데코레이션 헬퍼, 케익배우고 싶으신 분, 바리스타 관심있으신분. 유경험자, 초보자 환영.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TEL: (616) 333-03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크 BTS 온다" 방탄소년단, 신곡 'FAKE LOVE' 티저 공개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트랙리스트에 이어 타이틀곡 'FAKE LOVE' 티저를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15일 공식 홈페이지 및 팬 카페, SNS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정규앨범 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곡 'FAKE LOVE'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쇼팽 '이별의 왈츠' (Valse op.69-1 'L'adieu')가 배경 음악으로 사용돼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 따라 멤버들이 한 명씩 차례로 등장, 각기 다른 물건을 건네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정국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둡고 낮은 이와 마주하며 영상이 마무리되고 동시에 'FAKE LOVE' 노랫말이 잠시 공개되면서 새 앨범 타이틀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타이틀곡 'FAKE LOVE'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으로 이번 앨범의 테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지 록 기타 사운드와 그루비한 트랩 비트가 기이한 음울함을 자아내는 이 모 힙합 장르의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어두



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정규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를 공개하며, 2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리는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새 앨범의 신곡 무대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breeze52@news1.kr

'주간아이돌' 김태원X김종서X김경호X박완규, 자존심 건 록커의 고음 대결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고음 대결을 펼쳤다.

16일 방송한 MBC every1 예능 프로그램 '주간아이돌'에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출연했다.

'주간아이돌' 진행자 김신영은 네 사람에게 록커 고음 대결을 제안했다. 김종서는 "대기실에서 고음 대결을 한다는 말에 다들 뭐 이런 걸 하느냐며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어느새 다들

목을 풀고 있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네 사람은 주어진 문장을 음을 높여가며 이어 부르는 게임 '안녕 클레오파트라'로 고음 대결을 시작했다. 게임 시작 여부를 부르며 문장을 말하던 네 사람은 음이 높아지자 어느새 록커 특유의 고음을 내지르며 열띤 대결을 펼쳤다. 대결 결과 김종서가 우승해 상품으로 가슴기를 받았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둥근 빛 (5)

범인도 잡았는데 살인 동기가 없었다. 그 뉴스를 보며 남편이 계속 몸짓과 쉬운 영어로 설명해 주었다. 량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의 변화를 연구하다 보니 사람은 단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을 극복해 보려고 무작위로 읽던 책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예측하게 했다. 예측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 예측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나 판단으로 이어지고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행동 양식으로 이어진다. 남편이 왜 애써 이 뉴스를 내게 전하는지를 안다. 조용히, 가만히, 얍전히, 자신의 옆에 있으라는 명령이다.

채소를 가꾸는 철이면 옆집의 백인 할머니도 꽃을 가꾼다. 남편이 없는 날을 잡아 할머니가 나와 있을 때 나가 말을 시켜 보았다.

“하이!!”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 묻는다. “말을 할 줄 알아? 어디에서 왔어?” 량은 영어는 못하고 중국에서 왔다고 더듬더듬 말한다. 할머니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며 칭찬을 한다. 할머니가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신은 독일 여자고 영어와 독일 말을 할 줄 알지만 남편이 독일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자신은 독일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으나 남편이 허락

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독일 말을 못하고 자신도 많이 잊었다 한다. 꼭 중국 말을 잊지 말라는 말도 한다. 량은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인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심한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의 보통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량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남편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남자 우선주의라는 기본적인 뿌리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남편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위치의 신분을 갖고 있을 것인지는 쉽게 파악되었다. 남편은 비어있는 옆자리를 미국인 여자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을 것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왔을 것이라는 것, 남편은 미국 여자들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의 남자라는 것,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견딜만한 모든 일들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졌다. 량은 다른 운명의 판에 자신의 몸을 놓기 위해 이 남자를 잡았으니 이만한 일은 견뎌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 뒤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량은 할머니랑 양지바른 곳에서 늘 대화를 나누었다. 필사적으로 영어공부에 매달렸다.

량은 더 이상 새로운 기억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몇 가

지의 기억이 다 인지도 모른다. 충격적인 몇 가지 기억과 싸우는 동안 어쩌면 자신이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 다 먹힌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뭇잎 사이로 떨어진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빛 속에 엎드려 울음을 혁혁안으로 집어넣던 그날의 기억. 훗날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짐작되었지만 그건 이미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은 이미 변한 현재에는 이유가 아닌 변명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변화시켜 왔으니 엄마는 그들에게 동조한 한 사람일 뿐이다.

미국에 온 지 4년쯤 되던 날 량에게 그린카드가 나왔다. 량은 그 카드를 받아들자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얼굴의 근육과 종아리의 근육까지 모두 비운 뒤의 모란꽃처럼 불그스레 물이 오르고 있었다. 량은 그린카드를 꼭 움켜쥔 채 남편에게 영어로 말했다.

“나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겠어요.”

남편은 짐작했다는 듯이 오케이라고 말한다. 남편은 안다. 중국의 여자들이 그린카드를 위해 죽는 듯 살다가 카드를 받으면 태도가 변한다는 것을. 아무리 독립을 원해도 영어가 되지 않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잘 모르면 혼자 독립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공장에 나가 단순노동을 하고

임금은 은행 어카운트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남편들이다. 자리를 잡고 사는 중국인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어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량의 본능은 고양이처럼 변하고 있었다. 몰래몰래 살금살금 그러다 단 한순간에 쥐를 채가는 고양이처럼 행동했다.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정확한 영어로 단번에 요구하는 것이다. 남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힘들게 사냥한 여자를 그것도 어린 여자를 밖으로 내 보내면 어떤 결과가 올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량같이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던지는 여자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적 감정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에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넷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GRAND OPENING



소공동
So Gong Dong Tofu & B.B.Q.



소공동 순부두, 보스톤 퀸시에 오픈!

품격있는 서비스, 편안한 인테리어, 웰빙푸드
여러분을 명품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225 Quincy Ave.

So Gong Dong Tofu & B.B.Q.

10% OFF

Valid Mon-Fri, 11am-9:30pm only

One coupon per table. Must show this coupon before you order

Exp. Date: **Jun. 30, 2018**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617.302.4646
225 Quincy Ave. Quincy, MA 02169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가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2년 (2018년) 5월 20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제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자연스승이 이끄는 도량

신영의 **세상 스케치**

64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주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 다녀온 여행이다. 만 21살이 되던 해인 1985년 미국에 갔다가 1988년에 몇 개월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때 처음 제주 여행을 했다. 그때 만나고 느꼈던 제주의 이미지는 내게 그리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휴식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한참 88서울올림픽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어수선한 느낌과 함께 내게 실망을 주었던 기억이다. 그리고 1989년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다시 들어왔다. 그렇게 30년을 훌쩍 보내고서야 2년 전 제주를 다녀오고 올봄에 제주를 찾은 것이다.

2년 전 한국을 방문하며 30년 만에 찾았던 제주를 내게 귀한 의미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제주올레걷기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놀멍 쉬멍 제주의 자연, 문화,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로 그해 7회째를 맞았다. 진행된 축제는 제주올레 1코스(15km)와 2코스(14.5km)를 하루 한 코스씩 역방향으로 걸으며 진행되었다. 2016년 제주올레걷기축제에는 양일간 7000여 명의 도보 여행객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 축제를 위

해 지역 주민들이 굶은 날씨에 비바람을 맞으며 걸은 올레꾼들을 만난 먹거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2016년 찾았던 제주올레길은 내게 열흘을 제주에 머무는 동안 귀한 추억의 시간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다시 오리라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올봄 한국 방문에는 감사하게 사진을 하는 분들과 인연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 여행이 되었다. 한국에서 사진을 하는 친구와 와싱턴에서 오신 작가 선생님 그리고 보스턴에서 온 나와 함께 셋이서 참으로 값진 여행이 되었다. 사진을 하는 분들이니 말수가 적어 좋았고, 제주 여행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라 어느 곳을 찾아야 할지를 잘 알고 계셨기에 내게는 참으로 고마운 시간이었다.

제주의 해안 길은 참으로 곱고 아름다웠다. 쪽빛과 옥빛의 푸른 바다와 파도 그리고 바다 내음은 절로 마음을 평안한 힐링으로 안내했다. 바람이 있어 파도의 출렁임은 제주 바다를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다가 바다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자동차를 세우고 카페

라를 메고 달려가 각자의 풍경을 담곤 하였다. 때가 되면 해안가의 고즈넉한 곳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로 창작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일까 여행을 하고 창작을 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행복했다.

미국에서 풍경을 담으러 다닐 때는 그날의 날씨 정보만 정확히 확인하고 움직이면 별 탈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도심과 함께 산과 들로 움직일 때는 날씨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곤 했다. 그것은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로 인해 몇 날 며칠 동안 뿌연 하늘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맑은 하늘과 푸른 하늘을 만나는 날은 정말 어려웠다. 우스갯소리로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이 있듯이 사진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울에서 파란 하늘 만나기란 하늘에 별 따기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말이다.

제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는 동안 제주의 하늘은 쪽빛 파란 하늘을 자주 보여주곤 했었다. 길을 지나다 만난 차향 가득 초록의 차밭 '오설록'에서의 느낌은 그곳에 있

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절로 되었다. 또한, 하늘마저도 노랗게 물들일 것 같은 노란 '유채꽃밭'에서의 추억은 내게도 참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꽃밭이었다. 유채꽃밭에서 단풍이 오롯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 들뿐만이 아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웃음꽃을 피우는 중년 여인들의 모습과 부부와 가족이 함께 환한 웃음으로 오가는 이들의 모습은 노란 유채꽃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제주 '섬지코지'에서의 황홀한 여명과 일출을 만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일어나 일출을 만날 때의 그 감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신비와 창조주에 대한 감사이다. 이렇게 일출을 만나려고 '산방산'을 답사하고 다시 일출을 담으러 가고 제주의 용암분출로 생성된 현무암의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의 아름다움은 입을 다물게 했다. 어디 그뿐일까. '용눈이오름'에서 마주한 강한 바람과 제주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과 제주 바다에 우뚝 솟은 '성산일출봉'은 참으로 멋졌다. 이번 제주에서의 사진 여행은 내게 값지고 아름다운 추억의 여행이 되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온도 차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김우석, 다정한 온도)

한국 다른 중앙 일간지에 실린 컬럼도 있다. 한 구절만 그대로 옮긴다. '오래 당할 수록 작은 호의에도 쉽게 감동한다.' 컬럼은 걱정반 부탁반 말을 이어갔다.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복핵이 완전히 폐기된 뒤에 감동하자고 했다. 글은 그닥 뜨겁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다. 먼저 글과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말이다.

감동과 온도 차이가 어디 한국에서 뿐이라. 분명 평양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도 다를 것이다. 북경은 어떨 것인가? 모스크바는, 그리고 동경에서는 어떠한가? 하긴 그 사람들은 제 주관 알 퉁기는데 골몰하고 있을 게다. 에어컨을 팔

것인가 아니면 히터를 수입할까 궁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워싱턴이나 보스톤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도 결코 작지만은 않다.

그날 밤, 그건 폭죽이었고 불바다였느니라. 발고랑 사이를 정신없이 뛰었지. 내 어머니가 생전에 들려주던 말이다. 공중폭격이 있었는데 폭탄이 사망에서 터졌다고 했다. 6.25전쟁이 준 참화인데, 어머니에게 그날밤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걸 가슴에 안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날이 뜨거워 졌다. 당연히 기온이 올라갔다. 뜨거운 불가마라 한다면 과장이다. 하지만 너무 달궈져 터질까 걱정아닌 걱정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시편 39:3)

아내는 컴퓨터로 한국뉴스를 보고 있었다. 가볍지 않게 흥분하며, 아내가 들려준 말이다. 돌아가신 내 장인 유언이었다. 당신이 모았던 용돈을 남기셨고, 이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에게 전해달라. 생전에 야기던 잠바도 남기셨는데, 그것도 주라고 당부하셨단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장인이 흘렸던 눈물은 훨씬 뜨거웠을 것이다.

한반도 소식이 날아든다. 뜨거운 소식이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던 한 컬럼 제목이다. 종전 終戰입니다! 제목은 환희에 넘쳐 들떠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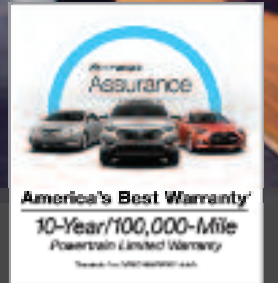
런데, 읽어 가면서 찝찝한 기분이 드는건 어찌 된 영문인가. 이십여년전 인가. 김일성의 사망 뉴스에 흥분한 적이 있다. 곧 통일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앞지른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때, 한국인 모두 열광했을 것이다. 뜨겁기가 체온을 훨씬 넘겼더랬다.

너의 다정함의 온도는 36.5도를 넘겨 내게 화상을 입힌다.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J1 VISA 리스 할부 가능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8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999 down payment
- MSRP \$23,190



Automatic, FWD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1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999 down payment
- MSRP \$19,845



Automatic, FWD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7,875



Automatic, AWD

2017 Hyundai Tucson Sport

Lease: **\$15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8,935



Automatic, FWD

2018 Hyundai Kona SE

Lease: **\$16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999 down payment
- MSRP \$21,875



Automatic, FWD

2017 Hyundai Veloster Value Edition

Lease: **\$16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1,999 down payment
- MSRP \$22,310



Automatic, FWD



36 month lease with 10,000 miles per year. All lease prices exclude sales tax, title, \$650 acquisition fee and \$495 documentation fee. Taxes are additional. No security deposit.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Valued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vehicle distributed by Hyundai Motor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Coupon. Competitive Owner Coupon available if currently a registered owner of a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 See your local dealer for program details and list of qualifying competitive vehicles.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Valued Owner Coupon. All offers expire 05/31/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잠에서 깨어보니

또 잠이 들었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니, 역시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는 1500년이었다. 나는 빵 배달부였다.

나에게는 말수레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빵을 배달했다. 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던 1600년, 1700년, 1800년에도 나의 일상 생활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자고, 씻고, 그러다 1870년에 낮잠을 1940년에 깨어났을 때는 세상이 변해 있었다. 말수레 대신에 자동차라는 것이 생겼다.

사람들이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장거리 실시간 대화를 했고, 전등이라는 발광물체로 밤을 밝혔으며, 하늘에는 비행기라는 물체로 하늘을 날아갔다.

뉴욕에는 100층이 넘는 고층빌딩이 생겼고, 에어컨디션은 한 여름에도 실내온도를 내려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70년의 낮잠에 변해 있는 것이다. 몇 백년동안 한결같은 일상생활이 과연 어떤 이유로 70년만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걸까?

두가지 “일반목적성 기술”의 개발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 이 두가지 기술은 몇백년의 삶의 방식을 단 한 세대만에 바꿔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은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맞았고,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생겨나게 되었다. 생산력은 몇 백배의 효과를 가져왔고, 농부가 하루걸러 소쟁기로 갈던 밭을 트랙터로 몇 십분안에 끝낼 수 있었다. 1944년에는 미국항공기 제작공장에서, 한시간에 한대씩 폭격기가 생산되었다. 세계경제는 엄청난 진보와 혼돈을 겪어내야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연연한 측은 도태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0년에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2017년에 깨어났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반목적성 기술”이 개발되었다. 컴퓨터가 보편화 된 것이다. 컴퓨터는 인터넷을 제공했고, 종이대신 컴퓨터 화면, 종이돈 대신 온라인 페이먼트 등등. 그러나 나에게는 컴퓨터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아

직도 자동차를 몰고 다녔고, 냉장고, 전등, 비행기, 에어컨 등은 이미 내가 잠들기 전에도 존재하던 기술들이었다. 즉, 지난 70년동안은 과격적인 기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04년을 기준으로 경제 생산력이 저조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 1900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생산력이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결론은 아직 우리에게 전기나 내연기관 같은 과격적인 “일반목적성 기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많은 변화도 사실상은 더딘 발달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에이전트가 집을 보여주고, 가격편견에 다투어야 하고, 서류와 규정으로 범벅된 용자에 하염없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주택을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다는 혜택만이 유일한 밤 하늘의 북극성같이 빛을 내고 있다.

한 15년전에 아시는 지인이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셨다.

이 지인은 그 당시 다단계를 하는 분이였다. 내가 집을 보여 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 같이 사진과는 다르네요이다. 집은 현실이다. 직접 보고 내편이 되어 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익스팩션 용자를 모두 점검하고 사야 하는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 1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647년 선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었다. 그리고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사촌동생인 승만(勝曼)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신라의 제28대 진덕여왕이다. 아버지는 국반갈문왕으로 진평왕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월명부인 박씨이다. 즉위 초에는 상대등 알천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리고 648년 부터 654년 3월 죽을 때까지 친정을 하였다.

645년 상대등에 오른 비담이 647년 1월 난을 일으켰다. 선덕이 외병 중에서 후사가 없이 임종이 가까와짐에 따라 승만이 또 차기 여왕이 등극하게 될 것을 보면서, “여자 군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여주불능선리(女主不能善理))”는 주장으로 비담은 염종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 변란 중에 선덕여왕은 죽었고 김춘추와 김유신의 보좌로 승만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9월 후 그들은 비담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알천이 상대등에 올랐다(선덕여왕은 1월 8일에 죽었고 비담의 난은 17일날 평정되었다. 삼국유사에 보면 소지왕 때인 488년부터 설을 쇠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초부터 설 쉼도 없이 왕궁에는 흥사와 피바람이 불었다). 알천은 진덕여왕의 재위와 거의 동일하게 상대등으로 있었다. 혼인동맹으로 맺어진 김춘추와 김유신은 진덕여왕 8여년의 재위동안 좌우에서 보좌하면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러다 654년 진덕여왕이 죽었다. 화백회의와 진골세력은 알천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하였지만 그는 김춘추에게 양보하였다. 그리고 김춘추가 제29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가 태종무열왕이다. 그리고 처음 단행한 인사에서 일인지라 만인지상인 상대등으로 당시 60세나 되었던 김유신이 아닌 상당히 뜻밖의 인물인 금강을 임명하였다. 삼국사기(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년조, 655년)에 보면 “봄 정월에 이찬 금강(金剛)을 상대등으로 삼고, 파진찬 문충(文忠)을 중시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왕위에 올리는데 김유신의 공이 으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삼국사기 50권 중 3권이 김유신에 관한 기록이다(열전 10권 중 3권이다). 거기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강에 관한 기록은 아주 짧게 두 곳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다. 화랑세기 없이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았을 때는 금강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찬 벼슬의 금강이 655년에 무열왕에 의해 상대등이 되었다는 기록과 660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하지만 화랑세기(8세 풍월주 문노편)와 교차해 보면 그의 가계와 세력 등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금강은 문노의 막내아들로 진덕여왕이 후사없이 죽고 나서 차기 왕을 세울때 김유신 못지않게 김춘추를 도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알천의 세력을 누르고 성골이 사라진 신라 왕실에서 최초의 진골이 왕이 되는 서막을

열었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은 진지왕의 아들이고 어머니 또한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문정태후)였지만 김춘추는 진골이었다. 기록에는 없지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밖에 없다. 진지왕이 폐위될때 그 후손들이 족강이 되었거나 진평왕이 자신의 적자손들만이 성골이라고 위풍의 범위를 좁혔을 가능성만을 추측해 볼 뿐이다.

김춘추가 등극한 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인사에서 60세의 김유신이 아닌 2등급인 이찬 벼슬의 금강을 상대등으로 올리고 4등급의 파진찬 벼슬을 하고 있던 문충을 중시로 삼았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상대등에 버금가는 벼슬에 있었을까? 그런 짐작이나 예상은 5년 후인 무열왕 7년, 660년 같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다음 기록을 보면 별로 설득력이 없어진다. “봄 정월에 상대등 금강(金剛)이 죽었으므로 이찬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5년간 김유신은 아마도 이찬의 벼슬에 머무르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비로소 금강이 죽은 후에야 상대등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을 볼때 금강이 김유신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며 김춘추와 김유신이 ‘혼인동맹’으로 세력을 규합한 그들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위의 두 가지 외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화랑세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문노의 기록과 아들 금강의 기록이 있기에 그들 가계의 정치

적 세력과 금강의 나이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문노는 606년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537~8년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윤공은 10살이 적고 같은 해에 죽었다. 그러니 윤공은 547~8년생임이 확실하다. 그들은 문노가 39세에 결혼했으니 당시 윤공은 29세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는데 금강은 막내아들이다. 그래서 금강은 606년 전에 태어나야 하고 문노와 윤공이 결혼한 577년 이후에 태어나야 한다(윤공의 첫남편 동륜태자가 572년에 죽었다). 그리고 윤공의 가입연령을 45세까지로 본다면 3남 3녀 모두 578년에서 592년 사이에 태어났다. 금강이 아들로서는 막내이지만 정확하게 몇째인지는 기록이 없다. 설령 가장 막내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도 595년생인 김유신보다 나이가 많다. 또한 문노의 어머니는 비록 가야의 공주였지만 아버지 비조부, 조부 호조, 증조부 비지 등 그의 가계는 뿌리 깊은 진골의 집안이었다. 결국 귀화하여 품위를 받은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 못지 않게 전통적인 세력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2018 A+ Summer Program

July Session: July 2 – July 23, no class on July 4
August Session: July 30 – August 17

SAT Test Prep



Summer SAT Test Prep: 점수를 최대 250 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SAT Test Prep

SAT 시험 예상 일시			
2018		2019	
August 25	November 3	March 9	June 1
October 6	December 1	May 4	

ASC A +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SAT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모든 수업 자료는 ASC 포털에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ASC A + 프로그램 고유의 수업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 + SAT 학생들은 빠른 성적향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 약점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실전 테스트.
- 혁신적인 학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계획.
- 개인 맞춤형 테스트 전략 및 기술 개발.
- 최고 점수 향상을 위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 실전과 동일한 시간과 내용의 테스트를 통한 진단.

Ivy League STEM Training



• Mathematics • Science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 STEM Training

A +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Ivy League STEM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Ivy League 코치의 STEM 과목에서 고급 교육을 받게되며 Ivy League에 적합한 대학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STEM 과정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공됩니다. 각 수업은 Ivy League 강사 및 콘텐츠 전문가가 진행하며, 모든 수업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Ivy League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Mathematics:**
- Algebra I and II
 - Trigonometry
 - AP Calculus
 - AP Statistics
 - Geometry
 - Pre-calculus
 - AP Calculus BC

Science (all at the AP level):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Locations & How to Apply

50 Sewall Ave.,
Brookline, MA 02446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Contact us at 617-730-3705 or 617-338-5288, or email to aplusinfo@ascenglish.com

Website: aplusprogram.com

Facebook: [@aplusprogram](https://www.facebook.com/aplusprogra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미 사회보장 협정 (1)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OCIAL SECURITY)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 가능),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장 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에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한다.

미국의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는 일정소득이상의 미국 거주 피고용인(employee)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피고용인은 연방보험료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자영업자는 자영보험료법(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소득의 15.3%)를 재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규정이 달라 한 명의 가입자에게 두나라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나 장기 취업 및 이민 등으로 연금가입국가가 변경된 경우,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지급권 등에 있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정부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 첫째: 양국간의 이중가입 면제,
- 둘째: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의 가입기간 합산,

- 셋째: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 넷째: 연금 수령액의 해외 송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 이중 가입 면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양국간 이중 가입 면제 규정이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나라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연금에 가입한다.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 적용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국에 근무하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국민연금을, 미국에 근무하면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다만, 해외 지사나 관계회사 등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4년 연장 가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나온 직원의 경우 5년(연장한 경우 9년)이내의 기간 동안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 받는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영업자는 거주국의 법령 적용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받는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동일인의 동일한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로, 미국에서는 근로자(반대로 미국에서는 자영업자로, 한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그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한국의 법을, 미국의 거주자이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2. 가입기간의 합산

협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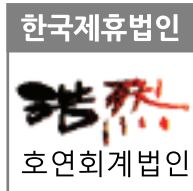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한국의 가입기간만으로

는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권(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미국과의 합산으로 취득한 비례금액보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간만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가 미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미국의 연금 수급권(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6크레딧) 이상이어야 한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된 가입기간은 제외한다. 또한 미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한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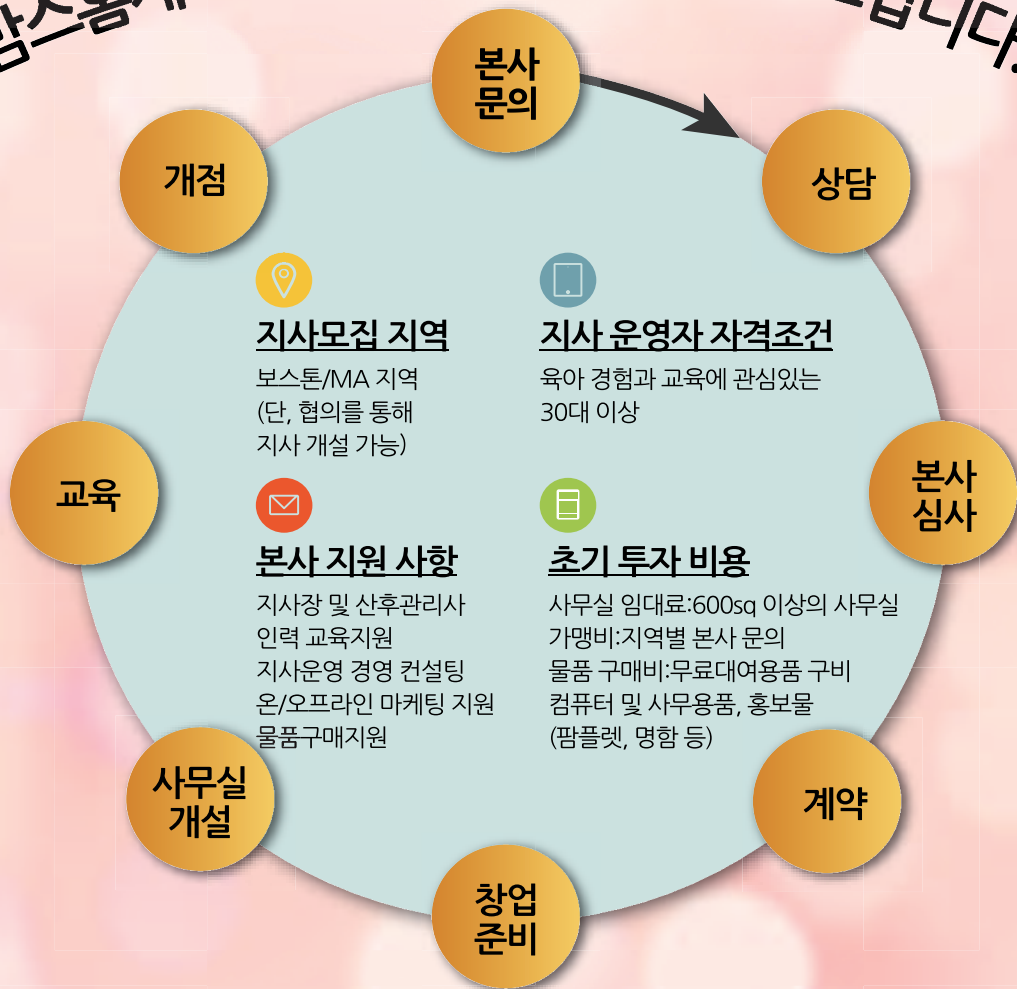
산 / 후 / 조 / 리 맘스홈케어



HOME CARE 주정부 승인업체
License #HP0252200
Child Care Tax Benefits
정식보험 가입(200만불)
산후조리사 Certification 발급
www.momshomecareusa.com

Boston MA지역 지사모집

미 동부 최초 산후조리 전문회사
맘스홈케어에서 함께 할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소자본 고소득 유망직종 맘스홈케어가 창업 컨설팅 해 드립니다!

회사소개



산후관리 서비스

- 01** 출산전·후 병원 활용법
항달, 출산후 주의해야 할 음식
병원 준비물
- 02** 산모체형관리
(산후 마사지, 온욕 등)
- 03** 모유수유에 관한 상식
유축기 사용방법
모유 보관법
아기 안는 법, 아기 목욕법
기저귀 가는 방법
- 04** 산모들의 체형을
위한 균형잡힌
식단제공

NJ 본사

문의 551.999.2222

www.momshomecareusa.com
345 Broad Ave. Leonia, NJ 07605

NY지점 718.460.0100

38-33 150th St, 1Fl. Flushing, NY 113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39) 2018년 서울머니쇼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서울머니쇼'는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라고 소개합니다. 광고 내용에는 "재테크 고수, 부동산 투자비법, 고수의 부동산, 시장전망, 실전투자, 금융 전망, 투자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안목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언어도 필요합니다. '재테크 나침반, 명품 투자 전문가, 국내외 최고 재테크 전문가' 등입니다. 서울머니쇼에 참석한 후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가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투자 고수 혹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가정해도 진짜 '투자 고수'를 만나기가 어렵고 혹은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해도 '투자비법'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45년 전 출판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맥키엘(Burton Malkiel) 교수입니다.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

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 투자자는 펀드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유연장에 기부하고 남는 돈(상속)의 "90%는 뱅가드 인덱스 펀드(S&P500)에 나머지 10%는 채권(Short-Term Bond)에 투자"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인덱스 펀드가 주식 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85% 이상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률은 지난 1, 5, 10 그리고 15년 평균도 같은 결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1817)는 약 200년이 됩니다. 오랜 역사는 많은 자료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역사(1986, 코스닥은 1996)는 길게 잡아야 30년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인덱스처럼 어떤 기준점이 되기에는 짧은 역사입니다.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열번만 던지

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80 혹은 9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듯이 짧은 기간의 통계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 됩니다. 투기판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고파는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장기투자는 6개월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대박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 일은 아닙니다. 주식 단기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지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주식투자를 도박처럼 베팅합니다.

머니쇼에서 특강을 하는 대부분은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회사 등입니다. 미래를 예측한 주식선별과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화폐통화를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

사했던 버냉키(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했을 때 맞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니쇼에 참여하는 투자업체는 신문에 참가비를 냅니다. 신문사는 투자업체로부터 돈을 벌고 투자업체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벌니다.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연 객관적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 투자 조언과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하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제대로 하는 투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이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변호사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수만불에서 수십만 불에 이르는 가맹비를 지불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대해 변호사의 리뷰도 없이 서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잘못된 계약서로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랜차이즈 법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서명했다"라는 식의 말을 믿고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가 제시하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접하는 꽤 흔하고 간단한 예를 함

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 은퇴를 한 K씨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노년에 그냥 집에서 쉬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K씨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요즘 잘 나가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제시한 계약서를 받았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서명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리뷰 기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K씨는 계약서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법적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글씨도 작아 읽기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도 생각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높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하게 서명하는 표준 계약서"라는 말에 K씨는 안심이 되어 결국 그냥 서명했습니다. K씨는 한적한 주택가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했고 꽤 돈도 만

옆에 동일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화가 난 K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항의를 했지만 사업주는 "계약서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의 반경 몇 마일 안에는 새로운 가맹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exclusive territory, protected territory)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K씨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호되는 지역에 대한 반경 거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만약 K씨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리뷰했다면 변호사는 K씨의 사업장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 한적한 주택가이며 해당 거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협상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의견이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Forbes는 그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무료 전문가 상담"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프랜차이즈 조언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변호사는 결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사항이나 법에 대한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